

작가 석윤기의 언어구사특성

리 금 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구사의 사실주의원칙을 구현하는데서는 개성적인 참신한 표현을 탐구하는것도 중요하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0페이지)

개성적인 표현을 탐구하는것은 언어구사의 사실주의적원칙을 구현하여 문학작품창작 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뿐아니라 우리 말 어휘를 풍부히 하여 언어생활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의 개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구현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본질적인 생활세부들과 함께 대상과 정황에 알맞는 생동하고 참신한 언어표현들에 대한 고심어린 탐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생활의 안목있는 탐구자, 언어구사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작가 석윤기(1929-1989)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고난의 행군》과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중편소설 《전사들》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는 과정에 자기의 언어구사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은 작가 석윤기가 1964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주인공인 조선인민군 전사 박세철과 항일혁명투사인 보병련대 련대장 전학민, 분대장 리막동, 주인공의 애인 보패 등과 같은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히 형상하고 맥아더, 델레스와 같은 적진영인물들의 취약성과 악랄성 등을 생동하게 나타내는데서 자기 식의 독특한 언어표현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작가 석윤기의 언어구사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에서 소박한 언어표현들의 독특한 결합으로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사상정신적지향과 개성적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준것이다.

우선 작가는 전학민을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들을 형상한 문장들에서 소박한 언어표현들로 그들의 사상정신적지향을 잘 보여주었다.

《직일판이 달려나간 다음에 학민은 다시 지도를 마주하고 앉았다.

그러나 벌써 그 무수한 등고선과 부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조국이 위기에 직면한 이때 그의 머리에는 이 조국의 운명을 땀어깨에 걸머지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이께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계실가, 혹은 정치위원회에서 무슨 중요발언을 하고계실지도 모르지.))

우의 실례문장들에서는 《당과 수령, 혁명위업, 충실성, 엄혹한 시련, 전쟁》 등과 같은 언어표현들이 직접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의 문장들에서는 완곡적인 언어표현을 통하여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사는 혁명전사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보패가 아버지앞에서 자기를 자책하는 장면과 그가 인민군대로 떠나는 장면에서도 《…수령님께서도 방송연설에서 가르치시지 않았니.》,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처럼 조선인민 누구나가 한사람같이 께기하여 참가하여야 할 신성한 전쟁인걸…》 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행동, 모든 대사에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구현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우의 실례들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작품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맺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연계를 자질구레한 묘사문이 아니라 독특한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또한 작가는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개성을 형상하는데서도 소박한 언어표현들을 자기식으로 독특하게 활용하였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형상하면서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형상에 쓰이는 《완력있다》, 《결패스럽다》, 《배짱이 이만저만아니다》 등과 같은 말마디들을 리용한것이 아니라 흔히 쓰이는 어휘들을 독특하게 결합시켜 리용하였다.

구체적인 실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박세철이 인생행로가 복잡한 안휘태기사의 출당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출세주의자 장인택에게 하는 대사

《뭇말이요? 난 반대라는데 무슨 잔말이 많소?》

—미국놈들의 비행기폭격이 있는 다음 전호에서 변함없이 푸르른 하늘과 부지런히 활동하는 다람쥐를 보면서 하는 속대사

(참으로 사람이란 억센것이구나.)

우의 대사들은 주인공이 서로 판이한 정황에서 하는 대사이지만 공통적인것이 있다. 그것은 대사에 꾸밈이 없고 진부한 말마디가 없으며 주인공이 자기의 립장을 단마디로 표현한것이다. 만일 첫 대사에서 주인공이 《나는 안휘태동무가 과오를 범했지만 그의 당적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출당까지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와 같이 앞뒤가 꼭꼭 맞게 논리적으로 말하는것으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생활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가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말로만 되었을것이다.

—광산토배기인 검덕광산초급당비서 엄익준의 말

《로동계급이 어쨌든 로동계급이지 뭘 말인가?》

그의 이 말은 주어와 술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있지만 《범은 호랑이이다.》와 같이 문법적뜻이 맞지 않는 잘못된 문장인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구처럼 되어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긍지와 자부심이 집약되어있는 문장이다. 주어와 술어가 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한개의 문장에 로동계급에 대한 여러가지 감정을 담은것은 고지식하고 무엇이나 숨길 줄 모르는 성격을 지닌 로동계급출신의 당일군을 형상하는 대사에서 독특한 언어표현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특히 두번째 실례문장에서 주인공이 (참으로 사람이란 억센것이구나.)하고 생각하기까지 그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많은 체험을 하였고 그만큼 성장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그가 속으로 느끼는 거창한 감정을 그 한마디의 속대사로써 표현하였다. 이것은 주인공의 지성도를 떨구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성장을 뚜렷이 보여주며 해당 정황에 맞게 그 인물을 형상하는데서 깊이가 있는 언어표현으로 된다.

그것은 이 문장자체가 등장인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많은 뜻을 담고있기때문이다. 이 말을 통하여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주인공이 정확한 인식은 가지지 못했어도 꽤부로 느끼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른 실례로 세철을 전선으로 보내면서 그의 어머니가 하는 대사와 미국놈들의 폭격 당시 부르조아경제학자 민환규의 속대사를 들수 있다.

- 세철 어머니의 대사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네가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하는게 무얼하겠니? ...그놈들이 싸움을 걸었다니 그게 쉬울수는 없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거라.》

자식의 장점과 약점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보다 깊은 농촌어머니가 《네가 아직 혁명적각성과 단련이 부족해서 싸움을 잘 못할가봐 걱정이다.》와 같이 말한다면 대사로서는 성립이 된다고 해도 우의 문장과 같은 생동성은 보장할수 없을것이다.

- 민환규의 속대사

《너희들은 버려지로부터 인간에로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너희들가운데 많은것들은 아직도 버려지에 불과하다. 일찌기 너희들은 원숭이였다. 그리고 지금껏 인간은 어느 원숭이보다도 더 심한 원숭이다.》

작가는 비슷한 정황에서 주인공과 민환규의 대사를 대치시킴으로써 준엄한 시기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애국자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부르조아지의 사상적대립을 언어형상적측면에서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작가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형상함에 있어서 누구도 쓰지 않는 특이한 어휘를 고르는데 치중한것이 아니라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하는》, 《목대가 휘친휘친한》, 《서로 은근한 뜻이 있으면서도 남에게나 자기에게나 아무것도 감출것이 없는것처럼 가장하기 좋아하는 꾀내기애인들》과 같이 평범한 말마디들을 가장 적중하면서도 독특하게 결합시켜 리용하였다.

이와 같이 작가는 작품에서 특별히 요란한 말마디가 아니라 소박한 언어표현으로 등장인물들의 정신세계와 성격발전과정을 보다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작가 석운기의 언어구사의 특성은 다음으로 해당한 인물을 형상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어표현을 대응시킴으로써 인물형상의 생동성을 보강한것이다.

여기서는 적진영인물들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들게 된다.

- 맥아더의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반영한 실례문장

《...각본을 다시 써야 한다. 어느때인가 이 맥아더의 손으로 새로운 연극을 공연하고 말테다. 이 조선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

보는것처럼 우의 실례문장은 모두 화려한 말마디들로 《장식》되어있다.

이 말에서는 다른 나라를 타고왔기 위하여 벌리는 침략전쟁을 그 어떤 하나의 공연쯤으로 여기는 맥아더의 잔인성과 악랄성이 《공연》이나 《연극》, 《무대》와 같이 전쟁광신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말마디들속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이와 함께 맥아더가 브레들리에게 하는 대사에서는 《정의》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진정한 정의의 가장 란폭한 교란자가 이 말을 자주 쓰는것으로 하여 세계를 기만하고 인류를 속

이려고 날뛰는 적들의 파렴치성이 이 하나의 대사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공격》한다고는 하면서 목숨이 아까워 벌벌 떨며 겨우 산으로 기여오르는 적들의 몰골에 대한 형상에서 《그들의 산병선은 역시 미국식으로 훈련받은것들답게 그 험한 산을 오르는데도 앞서거나 뒤지는 법이 없이 일렬횡대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서서 마치 열병식이라도 하는것처럼 오를 맞추는데 신경을 썼다.》에서처럼 기가 죽은 적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질서정연하다》, 《열병식》과 같은 표현으로 적들의 가련한 몰골을 예리하게 풍자조소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을 돌리게 되는것은 일부러 단어조성수법인 합침법에서 서로 결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수 있는 단어들을 결합시켜 인물형상에 리용함으로써 해당 대상을 보다 실감있게 형상하였다는것이다.

그러한 실례표현으로서는 《량반부스레기》, 《거지상전》, 《서양가사》 등이 있는데 그 실례문장은 다음과 같다.

《…량반부스레기들로부터 상사람에 이르기까지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깎는다〉고 하며 크고작은 상투를 무슨 땀풀이처럼 따고다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검은 서양가사를 입고다니던 아버지 폴드빈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다가온 미국졸병놈의 얼굴이야말로 바로 그 폴드빈선교사의 얼굴이었다.》

《량반》은 착취계급의 신분을 나타내는 옛날말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분에 속하는자들을 나타낼 때에는 《량반사대부》, 《량반통치배》, 《량반놈》 혹은 그저 《량반》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스레기》는 어떤 물건의 작은 조각을 나타내거나 보잘것없는 대상을 얹잡아 부를 때 쓰이는 말인데 인민들의 등쌀을 얹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이런 놈들을 이 이상 더 좋은 말로는 부를수 없다는것을 작가는 새로운 합침말의 창조로써 보여주었다.

착취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빌어먹으며 사는 가난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지》와 주인을 나타내는 상전이 결합된 《거지상전》도 서로 대립되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볼수 있다.

또한 폴드빈선교사가 입은 신부옷을 《서양가사》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있는 《서양》과 불교에서 중들이 입는 옷을 나타내는 《가사》가 결합된 이 합침말도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두 단어의 결합으로서 선교사놈들의 겉과 속이 다른 파렴치성을 더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작가는 해당한 인물형상에 대립되는 언어표현들을 대응시키고 자기 식의 합침말들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인물형상의 생동성을 더 잘 보장하였다.

작품의 인물형상에 쓰인 언어표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그것은 언어구사의 특성이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쓰지 않는 순수 새로운 어휘를 창조하는것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여러가지 어휘적수단들과 문체론적수법들을 대상과 정황에 따라 어떻게 독특하게 활용하는가 하는것을 중요하게 나타낸다는것이다.

우리는 선행세대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깊이있게 연구분석하여 우리 민족어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고 언어생활을 참답게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언어학부문에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